

광주시가 키운 AI 스타트업 세계 무대 휩쓸다

창업 지원한 AI 스타트업 6개사 'CES 혁신상' 수상 인디제이 2년 연속 수상...제품·기술력 홍보관 운영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시의 든든한 후원을 받고 있는 지역 인공지능(AI)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국내외 해외 무대에서 '혁신상'을 휩쓰는 등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14일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사업단)에 따르면 시와 AI사업단의 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광주 AI 스타트업 6개사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가전·IT 전시회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4'에 참여해 혁신상을 수상했다.

수상기업은 인디제이(대표 정우주)·인트플로우(대표 전광명)·다비다(대표 이은승)·에코피스(대표 채인원)·고스트페이스(대표 이선관)·시너지에이아이(대표 신태영)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는 스마트가전, 5G, AI, IoT, 헬스케어, 자동차 기술 등 미래 기술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 전자·정보통신 기술(ICT) 전시회로, 올해 CES 화두는 광주시가 주도하고 있는 '인공지능'이었다.

CES를 주관하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는

세계 혁신 기술 상품을 평가해 기술성, 디자인 등이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에 혁신상을 수여하는 데, 광주시 지원기업인 인디제이는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혁신상 수상 기록 세우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인디제이는 올해 전시회에서 AI 기술을 접목한 소프트웨어(SW)·모바일 앱, 콘텐츠·엔터테인먼트 등 2개 분야에서 혁신성을 인정받는 성과를 냈다.

인디제이는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운전패턴과 차량 내외부 상황을 데이터화하고, 운전자·탑승자의 목소리·행동, 감정까지 감지해 고객이 말하지 않아도 눈치껏 솔루션을 제안하는 이른바 '눈치 AI' 시스템을 선보여 큰 인기를 끌었다.

인트플로우주는 인공지능(AI) 기반 비대면 가족관리 솔루션 '옛지팡이'으로 인류 안보 증진 분야 혁신성을 증명했으며, 다비다는 엔진 기반 ICT 융복합 지능형 라이브 화상 플랫폼과 스마트펜으로 스마트 도시 분야 혁신상에 이름을 올렸다.

또 에코피스는 녹조류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자율조류제거시스템을, 인공지능(AI) 핀테크 전문기업 ㈜고스트페이스는 완전 탈중앙화 생체

식별솔루션 기술력을 인정받아 혁신상을 수상했다. 시너지에이아이주는 AI 기술을 활용한 부정액 예측진단 솔루션으로 디지털헬스분야에서 혁신상을 받았다.

이번 전시회에선 '광주 공동관'과 '통합한국관'도 운영됐는데, 이들 기업 외에도 ▲썬류님 '멀티페르소나 챗봇플랫폼, 디어메이트' ▲썬제타뱅크 '로봇 팔이 장착된 AI 교육용 로봇' ▲썬뉴작 'XR 기술과 반응형 인터랙션을 결합한 트레이닝 시스템' ▲썬블루캡슐 'AI 기반 가상 스튜디오와 메타 휴먼이 조합된 플랫폼, 아이브스 스튜디오' ▲썬딤메디 '실버케어용 IoT 시스템' ▲썬벡프린터 '실내 감염 예방 공기살균정화기, 코코스', ▲썬아트랩 'AI 피부 맞춤 화장품·시술 상담 챗봇서비스, 스킨캣' ▲썬앤서 '후각 기반 알츠하이머 병 진단 인공지능 의료기기' ▲썬에이비추얼 '나노 반도체 소재 기반 모듈 시스템, 공기청정살균기' 등이 우수한 기술력을 전 세계에 선보였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CES는 광주 AI 기업의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글로벌 무대에 선보이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광주 AI 스타트업들이 좋은 아이템과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로 뻗어 나가고, 유력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통신기술(ICT) 융합 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 내 광주 공동관에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제공>

광주시, 시민과 '인권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추진

10개 마을 선정 예산지원...2월19~23일 접수·25일 사업설명회

광주시가 시민과 함께 인권문화 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진행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민의 인권문화 확산과 인권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2024년 인권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에서 주민들이 인권의 가치를 이해하고, 인권을 실천하는 인권문화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시작, 정착, 확산 등 사업단계별로 구분해 총 10개 내외의 마을을 선정하고, 1개 마을당 500만~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작단계(1~2년차) 마을은 인권 인식단계인 점

을 고려해 인권을 이해하고 감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하며, 정착단계(3~4년차) 마을은 인권 관점에서 마을 의제를 선정하고 실현한다. 확산단계(5년차 이상) 마을은 인권 관점에서 마을 의제를 선정하고 실현하면서 특화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사업 대상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법인, 주민자치(위원회), 10인 이상 주민협의체 등 인권문화 형성을 희망하는 마을 공동체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광주시에서 제시한 공모사업과 사업단계별로 제시된 중점 사업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2월 19~23일까지 광주시

인권평화과를 방문하거나 광주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또 접수 희망자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시청 1층에서 열리는 사업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광주시는 사업계획서 보완 등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사전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광주시 인권평화과로 하면 된다.

김광수 광주시 인권평화과장은 "마을에서 주민들이 함께 인권을 실천하고, 인권문화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화재취약시설 합동점검



광주시와 관할 소방서, 자치구 관계자들이 최근 전통시장을 찾아 화재 취약시설을 합동 점검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노후 공동주택·요양시설 등 38곳

광주시는 "전국적으로 노후 아파트 등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화재취약시설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고광원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직접 총괄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관할 소방서, 자치구, 관계기관 등과 함께 노후 공동주택, 요양시설 등 화재 취약시설 38곳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소방설비 작동 여부, 방화문 개방·피난계단 물건 적치 행위, 공용공간 화재안전

과 대피 관련 국민행동요령 비치 여부, 화재 발생 시 관리자의 비상방송 체계 등 피난 안전 설명서 비치 여부 등이다.

안전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시설 관리주체에 보수·보강하도록 하는 등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박남주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최근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화재 취약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화재 위험요소를 꼼꼼하게 살펴 화재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공기정화식물 이끼 작품으로 만나요"

광주시청서 2월 2일까지 전시

광주시는 "오는 2월 2일까지 시청 1층 로비에서 공기정화식물 이끼를 주제로 '초록의 속삭임 : 이끼로 쓰여진 자연의 시' 전시회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원예복지협동조합이 탄소흡수 및

도시 열섬현상 저감효과 등을 지니고 있는 식물 '이끼'를 통해 공기정화식물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마련했다.

전시에는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끼 정원 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이끼 전문가 14명이 참여해 17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남영숙 작가의 '탄소중립실현 이끼술에 담다', 흥미화 작가의 'RE : EARTH', 강

복희 작가의 '숨겨진 색들 : 자연의 팔레트' 등을 만나볼 수 있다.

휴면 이끼를 활용한 작품들은 물주기, 햇빛,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살아있는 녹색 벽이나 수직 정원과 다르게 물도, 태양도, 흙도 필요하지 않는 게 특징이다.

남택송 광주시 농업동물정책과장은 "공기 정화에 탁월한 기능을 가진 이끼를 주제로 한 행사가 시청에서 열리게 됐다"며 "많은 시민들의 방문·감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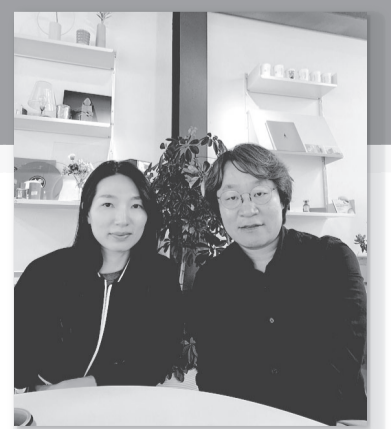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